



會 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特 韓 國 漁 港 協 會
 편집인 孫井植 特 韓 國 漁 港 協 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중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내년도 어항건설예산 1,618억 3,500만원

올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2001년도 어항건설예산이 최근 당정협에서 당초 요구액 2,190억 8,000만원의 73.8% 수준인 1,618억 3,500만원 규모로 확정,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은 농특회계를 포함, 금년대비 약 1%인 18억 1,300만원이 감

소된 수준이며, 이는 수산분야 예산의 18.2%이다.

이 가운데 제1·3종어항 건설예산은 올해보다 4% 줄어든 1,362억 2,500만원이며, 제2종어항은 45억 5,000만원이 늘어난 227억 5,000만원이다. 이와함께 육지소규모항에 대한 예산은 올해와 같은 28억 6,000만원이다.

또한 어촌민속전시관, 어

촌휴양단지, 어촌종합개발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33%, 2%, 10% 줄어든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미완공 어항을 조기에 완성, 수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등 재해방

지와 어항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보강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01년도 어촌·어항건설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예산(A)	2001예산안(B)	증(△) 감		비 고
			(B)-(A)	%	
합 계	189,251	184,565	△4,686	△2	
어항건설 소계	163,648	161,835	△1,813	△1	수산예산의 18.2%
1·3종어항					
소계	142,588	136,225	△6,363	△4	
일반회계	83,000	83,000	-		실시설계 6개항 신규 7개항 시설
농특회계	59,588	53,225	△6,363	△11	계속 11개
2종어항(농특회계)	18,200	22,750	4,550	25	
육지소규모항(일반회계)	2,860	2,860	-		시군지원
어촌민속전시관(일반회계)	3,000	2,000	△1,000	△33	계속 2개소
한국어항협회(일반회계)	952	996	44	5	청소선 7척
어촌휴양단지(농특회계-구조개선)	2,300	2,250	△50	△2	
어촌종합개발(농특회계)	19,351	17,484	△1,867	△10	신규 16개 권역
일반회계 합계	89,812	88,856	△956	△1	
농특회계 합계	99,439	95,709	△3,730	△3	
수산분야 합계	799,183	887,621	88,438	11.1	

제주외항에 인공섬 조성

해양수산부는 총 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제주외항건설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외항건설사업을 국내 항만개발로는 처음으로 인공섬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일 제주외항방파제축조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통해 제주외항을 기존의 해안선까지 매립하는 방식에서 탈피, 해안선에서 일정거리를 둔 인공섬을 조성해 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외항에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약 5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8만톤급 국제관광유람선 부두를 건설하고 항내에서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과 정박을 할 수 있도록 서측방파제를 축조, 안정된 수역유지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해양공원 등 친수공간을 대거 조성하기로 했다.

개발규모는 외곽시설인 방파제 1,880m를 비롯 8만톤급 등 대형선박 7척이 접안할 수 있는 1,380m의 접안시설과 공공부두 350m 등이 연차적으로 건설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같은 인공섬 개발방식은 제주도내 사라봉과 별도봉 전면의 해안선을 보존키 위한 것으로 기존의 해안선

까지 매립하는 개발방식에서 탈피, 해안선에서 약 100m의 거리를 둔 인공섬(36만㎡)을 조성해 부두를 건설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외항개발이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와 함께 국제항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침적폐기물수거항 추가선정

부산남항 등 15곳이 올 바다밀 폐기물 수거작업 추가대상항만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올해 시행할 바다밀 폐기물 수거작업 대상항만과 어항으로 부산남항 등 15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전국 항만과 어항 100곳의 해양폐기물을 오는 2004년까지 대대적으로 수거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85억원을 투입, 19곳의 폐기물을 치우기

로 했으며 현재 목포내항과 고흥 나로도항, 통영항, 여수 국동항을 폐기물 수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로 추가된 곳은 부산남항과 강원 거진·목호항, 전북 여청도항, 충남 안흥항, 전남 완도·녹동·마량항, 경북 강구·죽변·구룡포항, 경남 진해·외포항, 제주 제주·한림항으로 작년 실시된 수중 침적폐기물 실태조사에서 특히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지역들이다.

孫 회장, 일본 전국어항대회 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사카이 스나오(坂井 淳) 일본 전국어항협회장으로부터 9월 26일 일본 니가타현(新潟縣) 니가타시 산업진흥센터에 개최되는 제52회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해 줄 것을 초청받았다.

손정식 회장은 25일 방일, 대회전야 환영리셉션과 전국어항대회 참관후 니가

타현의 주요 어항을 시찰하고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정식 회장은 이번 전국어항대회에서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장 및 농림수산대신 수산청장관 등 정부 각료와 대일본수산회장, 각현어항협회장, 그리고 일본 전국어항어촌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고 양국의 어항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약 6% 늘어난 101조원 규모로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사상 처음으로 백조원을 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다.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은 농특회계를 포함, 오히려 올해보다 약 1% 가량 줄어든 1,618억 3,500만원 규모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금액으로 보면 약 18억 1,300만원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성장인프라 확충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인간개발을 통한 생산적 복지정착 △남북화해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 등 역점사업에 따라 예산이 늘어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여당은 농가소득안정과 어업경쟁력 강화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련예산을 정부축이 책정한 규모보다 좀더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건의가 얼마나 반영된지는 알 길이 없다.

물론 국가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랏돈이 많이 투입되어 국가재정이 적자 상태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그대로이다.

앞으로 2~3년은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적자 재정을 얼마나 규모있고, 건설하고, 그리고 요소요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건이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A급 태풍인 사오마이가 경상도 지역을 덮치고 지나갔다. 자연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거기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왜소한지 실로 새삼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일순간 지나친 태풍 한번으로 입는 피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면, 인간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이를 막아냄으로써 그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어항건설예산의 관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제원리의 가장 기본인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100을 들여 피해를 50으로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니면 이를 아끼기 위해 50을 들여 피해를 100으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점이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에 불과하지만 이번 어항건설예산의 규모에 대해 솔직히 많은 어항인들이 유감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내년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방문의 해임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에게 보여줄 제대로 된 어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촌민속전시관, 어촌휴양단지, 어촌종합개발 예산이 몽땅몽땅 잘려나간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바다를 단순히 고기나 잡고, 조개나 잡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단호감마저 든다.

우려는 또 있다. 이렇게 줄어든 예산마저 국회심의과정에서 또다시 삭감되거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저것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맞추다가 만에 하나 어항건설 예산을 또다시 손떨까봐 어항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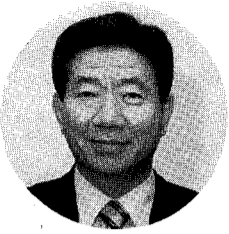
익히 들어온 말이지만 수산업을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항건설사업이 필수 선행과제이다. 해양수산부도 이를 고려, 내년도 어항건설사업 목표를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미완공 어항의 조기 완성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름지기 국가와 기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정부가 가장 잘 읽고 기업인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면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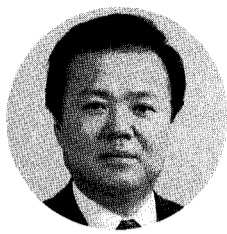
이런 관점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이, 어항인 수산인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어항예산 삭감되면 안된다

동정 MBC 100분 토론에 참석



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



孫井植 한국어합협회장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해양포럼' 창립총회에 참석, 수산물 유통구조 문제와 관련 "수산물 국제거래센터와 5개 광역물류센터를 건설, 산지·소비 수산물 직거래 비율을 5%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설명, 5일에는 아동보호 사회복지시설인 송죽원을 방문하여 위문·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 6일에는 수협중앙회와 수산물 바자회행사를 공동으로 개최, 7일에는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방문, 8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해양수산물 관련 토론회'에 참석, 21일에는 MBC 100분 토론 '2000년 한국 희망은 있는가?'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9월8일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정부와 NGO' 2000년도 기획세미나에 참석, 18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는 광주매일 회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7일 전경련 중심임원 진념 장관 초청오찬에 참석, 21일에는 21세기 경영인클럽 초찬간담회에 참석, 22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2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29일에는 한국능력협회 초찬세미나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5일에는 제27회 시드니올림픽경기참가 한국대표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18일에는 2010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의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일 나주종합체육관에서 제5회 용곡배 펜싱대회를 개최, 18일에는 2010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5일 무등파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토론회를 개최, 18일에는 2010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의에 참석, 20일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21일에는 주택공사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 22일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해양포럼' 창립총회에 참석, 수산물 유통구조 문제와 관련 "수산물 국제거래센터와 5개 광역물류센터를 건설, 산지·소비 수산물 직거래 비율을 5%에서 20%로 확대하겠다"고 설명, 5일에는 아동보호 사회복지시설인 송죽원을 방문하여 위문·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 6일에는 수협중앙회와 수산물 바자회행사를 공동으로 개최, 7일에는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방문, 8일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해양수산물 관련 토론회'에 참석, 21일에는 MBC 100분 토론 '2000년 한국 희망은 있는가?'에 참석.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9월8일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행정학회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정부와 NGO' 2000년도 기획세미나에 참석, 18일에는 경기도 파주시

공공회의소 주관 중국산업시장에 참여, 26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27일에는 해양엑스포 정몽구 회장 초청간담회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1일 중국 심양일보 관계자의 예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 9일에는 매송인터체인지 공사현장에 출장, 18일에는 군산대학교 교사신축현장에 출장.

□계장급 인사 △항만국 항만정책과 시설서기관 박준권 △항만국 항만개발과 토목사무관 이상구 △항만국 기술안전과 토목사무관 조치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토목사무관 정진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과장 행정사무관 강정우 △해양수산부 근무 행정사무관 조진희

□승진 △항만국 시설부이사관 정만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토목사무관 이수문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사무관 정용균(9.9)

□국립수산진흥원장 이장옥(9.1)

▲한국선박기술검사항목 리본부장 기호준(8.17)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430-4887, 448-4860

익 속

▲박희열씨(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회장)의 장녀 승화양이 지난 9월 23일(토) 상제리제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민성규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의 장녀 기원양은 오는 10월 14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 덕수초등학교 윗집 구세군 서대문교회에서 화촉을 밝힌다.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인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시설부이사관 이진호 △장관비서관 서기관 문해남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서기관 조화행 △해양정책과 해양개발과장 서기관 유재만 △항만국 항만건설과장 시설서기관 윤병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와장 시설서기관 나원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와장 시설서기관 양태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원 수사조사관 선박서기관 장영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사조사관 선박서기관 서성기 △해양수산부(장보고기획단) 서기관 민장근 △해양수산부 서기관 우예종 △장관실 행정사무관 황종우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박광열 △국제협력관실 원안영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광용(8.26)

기금기탁

▲손정식 회장은 9월 21일 한국어합협회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 협회 활성화를 위한 협찬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협회 창립이후 손회장이 협회에 기탁한 협찬금은 모두 7천5백만원이다.

익원가입

■단체

▲유성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오현봉)

■개인

▲이용기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양명석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주소변경

▲정해택씨(전 국립수산진흥원 과장)는 최근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현대아파트 302동 1103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

▲김성준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부사장)는 최근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0-20 가락대림아파트 5동 605호로

익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회장 정운삼)

▲태림종합건설주식회사(회장 권기욱)

▲김엔고살베지주식회사(사장 이정수)

■개인

▲신관수씨(전 보고수산주식회사 전무이사)

내진설계대상 무역항 우선

해양수산부 연안항 어항에도 내진보강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추진할 항만시설물의 내진설계 대상에 우선 무역항을 중심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점차 연안항 등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접안시설은 1만톤급 이상의 대형선부두 위주로 내진성능을 검토하고 내진보강이 사실상 곤란한 방파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현재 운영중인 항만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기준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내진설계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보강기준에서 항만시설물의 내진설계대상으로 무역항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연안항, 어항 순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중 인천항의 갑문시설과 부산·인천·광양항의 컨테이너부두 및 국제·연안부두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연안항과 어항은 항별로 대표적인 접안시설을 선택해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붕괴시 인명피해 등의 예상시설은 가급적 성능평가대

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설물별로는 우선 접안시설의 경우 1만톤급 이상의 대형선 부두위주로 내진성능을 검토하고 중소형 부두라도 중요시설은 내진성능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호안은 지진피해시 인명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검토하고 갑문은 내

진 1등급 시설로 분류돼 항만운영상 중요시설인 점을 감안, 모두 성능평가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여객청사 등 다중이용시설도 건축물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키로 했다.

그러나 내진보강이 사실상 곤란한 방파제는 내진성능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9개 신항만개발 속도붙여

부산신항만 등 국내 주요 항만개발사업에 외국기업의 물밑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호주의 P&O포츠, 싱가포르의 PSA, 홍콩의 HPH 등 세계 3대 항만기업이 부산신항만과 광양항 등 국내 주요 항만개발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해 정부 및 사업시행자들과 활발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내 항만에 관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세계적인 항만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형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 없는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우리나라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9개국에서 21개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중인 호주의 P&O포츠는 광양항 2단계 7선석과 3단계 3선석 개발에 일괄 참여키 위해 한국 컨테이너부두공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부산항 갑문부두확장공사와 자성대부두 운영권을 확보하려다 실패한 P&O포츠는 광양항에 4억~5억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주한 호주대사가 노무현 해양부 장관을 방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돼 다음달 공사에 들어가는 부산신항만 건설공사에는 세계 최고의 컨테이너항만인 싱가포르항을 운영하는 PSA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세계 18개 항만에 120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의 HPH는 북한항만개발사업 참여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내달중 고시될 마산항 컨테이너부두 1단계 공사 입찰에는 벨기에의 IPEM사가 참여할 것으로 밝혀졌다. IPEM사는 지난 3월 현대산업개발과 1억9천만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한바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키 위해서는 오는 2011년까지 9개 신항만을 건설하고 기존 항만을 확장해야 하나 이에 필요한 32조원의 투자비를 정부예산과 민간으로 조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이같은 외자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물품을 계약요청할 때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는 2만7천여발주기관은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통해 계약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계약요청서의 주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입찰대상업체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조달관련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의 공개로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계약요청도 전자문서화

앞으로 전국의 공공발주기관이 조달청에 시설공사를 계약요청할 때마다 대전청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재경부는 최근 공공부문 전자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 개정, 일선 행정기관이 조달청에 시설공사와

어항청소선 소식

10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명	월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10. 4 - 7	오천 군산연안 및 연도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fipa901@fipa.or.kr	
	10. 16 - 21			(휴대폰) 011-243-5590 E-mail : fipa902@fipa.or.kr	
어항 902호	10. 4 - 11	서남 목포내항	김성용	(휴대폰) 011-230-5591 E-mail : fipa903@fipa.or.kr	
	10. 16 - 21			(휴대폰) 011-232-5596 E-mail : fipa904@fipa.or.kr	
어항 903호	10. 11 - 14	녹동 녹동	조동식	(휴대폰) 011-247-5593 E-mail : fipa905@fipa.or.kr	
	10. 23 - 28			(휴대폰) 011-247-5594 E-mail : fipa906@fipa.or.kr	
어항 904호	10. 4 - 7	안도 국동 물산	박만성	(휴대폰) 011-243-5597 E-mail : fipa907@fipa.or.kr	
	10. 9 - 14			(휴대폰) 011-243-5597 E-mail : fipa907@fipa.or.kr	
어항 905호	10. 9 - 14	지세포, 외포 구조라, 능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4 E-mail : fipa906@fipa.or.kr	
	10. 23 - 28			(휴대폰) 011-243-5597 E-mail : fipa907@fipa.or.kr	
어항 906호	10. 9 - 14	양포 포항연안	김성훈	(휴대폰) 011-243-5597 E-mail : fipa907@fipa.or.kr	
	10. 23 - 26			(휴대폰) 011-243-5597 E-mail : fipa907@fipa.or.kr	
어항 907호	10. 9 - 14	거진 금진, 안목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fipa907@fipa.or.kr	
	10. 23 - 28			(휴대폰) 011-243-5597 E-mail : fipa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깨끗이 가꾼 바다! 필요한 바다목장

몰래버린 낚줄하나 바다생명 단축한다

올해 어항공사 대부분 예정공정 상회

올해 어항시설공사는 예년
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 8월
31일 현재 전체공사진도가
대부분 예정공정을 크게 앞
서 9개항이 준공되었고, 전
체 평균실적은 70.1%인 것
으로 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총 57개항 58건 공사중 지난
달 말 기준 55개항 56건 공
사가 진행중이며, 울도·남애
·마량·원평·서망·감포·양포
·도두·위미항 등 9개항 공사
는 준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태풍진로권 및 공사
규모가 큰 항의 조기발주와
완성단면 위주의 구조물시공
및 태풍기 이전 주요공정 마
무리 등 태풍피해 최소화
위한 항별 재해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건
실시공과 관련, 연초부터 현
지점검 및 시공평가를 지속
적으로 실시하여 어항공사의
건설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항지구 관광단지 개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
지구 일대가 주변 해상국립
공원과 연계한 대규모 관광
단지로 개발된다.

전북도와 부안군에 따르면
오는 2006년까지 공공자금과
민자 720억원을 들여 부안군
모항지구 일대 4만3천평의
부지에 관광호텔과 콘도미니
엄, 테마파크, 해양스포츠센

터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
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개발
대상지 일대를 준농림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
획을 변경했으며 관광지 지
정 및 조성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달말까지 마무리짓
기로 했다.

부안군은 모항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이 승인되면 사
업시행허가를 거쳐 내년 하
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천항 수산물 수출단지 건설

부산 감천항 동편 잡화부
두 건설 예정지에 수산물
원료구입부터 수산물 수출
을 윈스톱으로 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공사
가 내년 3월께 착공된다.

부산시는 28일 부산 감천
항 동편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옆 잡화부두 건설 예정지 1
만2천여평에 총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형의
윈스톱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내달
초 3천만원의 예산으로 타
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데 이어 해양수산부에 이를
정식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감천항 윈스톱 수산물수
출단지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는대로 내년 3월께 착
공, 오는 2005년 완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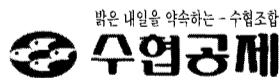
이 단지가 조성되면 수산
물 원료구입, 생산가공, 제
품 수출 등 절차가 모두 수
출단지 내에서 이루어져 물
류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감천항 지방산업단
지 조성사업자인 한국선박
기공수리공업협동조합은 감
천항 서안의 10만3천평 부
지에 선박수리업 및 부품생
산업체를 유치키위한 실시
계획 승인을 부산시에 요청
해 놓고 있다.

2000년 어항공사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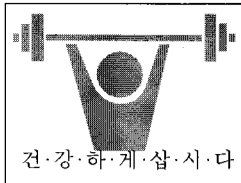
8월 31일 현재		(단위 : 천원)		
지방청. 항명	도 급 액	착공일	물 량	시 공 사
부산	대변 4,300,000	4.3	동방파제하부45.7m, 호안하부27m, 물양장하부113.6m	(주)부흥
인천	덕적			
	울도 1,962,000	준공	방파제상부112m, 하부57m, 상치120m 여객부두축조 1식	송우건설(주)
여수	녹동 2,017,000	5.8	물양장축조20m, 상부89m, 하부162m 도선장축조24m, 호안하부11m, 돌제하부33m	금광기업(주)
	풍남 2,956,900	4.15	서방파제상부38m, 도제하부221m,	건화건설(주)
	시산 2,594,700	4.27	물양장상부146m, 선양장상부30m, 호안축조25m, 도로1식, 파제축조140m, 등대1기, 준설33,096㎡	금광기업(주)
	국동 1,999,800	3.4	물양장상부18m, 하부231m, 호안상부120m	남화토건(주)
마산	남도 2,617,000	2.29	방파제상치74m, 상부40m, 하부71m, 하두부1식	(주)대아건설
	안도 808,100	6.12	물양장하부52m, 선양장하부30m, 도선장하부20m, 호안상부33m	동림종합건설(주)
	초도 3,437,600	6.3	북방파제상치150.5m, 상부145.5m(상두부1식포함)	영진건설(주)
	외포 373,149	6.26	물양장하부79m,	태영건설(주)
	지세포 3,493,600	6.1	서방파제하부35m, 선양장30m, 석산복구1식	성보건설산업(주)
	구조라 1,648,300	3.21	남방파제상부76m, 상치보강1식, 유람선 부두1식	우림종합건설(주)
	광암 861,000	3.3	물양장하부130m	(주)부흥
울산	맥전포 375,500	5.20	해안도로200m, 호안(직립식)하부20m, 물양장하부10m,	대명종합개발(주)
	삼덕 2,761,000	5.24	서방파제상부52m, 물양장하부186m, 차도선부두30m	우림종합건설(주)
	매물도 3,799,000	6.2	서방파제상부34m, 하부44m	대능건설(주)
	미조 291,550	8.1	호안도로축조229m	(유)동현건설
	정자 853,000	5.30	물양장하부170m, 호안축조30m	(주)부흥
동해	대진(강) 389,656	7.26	물양장하부117m, 호안정비1식	(주)현진개발
	거진 957,700	5.12	물양장상부94m, 하부93m	성원건설(주)
	수산 3,587,000	3.10	북방파제(익제)축조70m, 남방파제축조60m	(주)삼양사
	남애 812,100	준공	북방파제보강1식	(주)지원건설
	안목 3,580,000	3.21	북방파제축조72m	(주)새건설
군산	임원 2,318,000	3.15	동방파제축조58m	선경건설(주)
	여청도 4,666,000	3.15	동방파제하부82m, 상치106m	조흥공영(주)
목포	계마 653,700	6.24	호안도로축조217m, 확장322m, 후면복토1식	보성건설(주)
	원평 147,769	준공	호안도로복구340m, 신설120m	남호종합건설(주)
	소흑산도 5,277,800	3.6	파제제상부1식, 소파호안축조20m	삼부토건(주)

지방청. 항명	도 급 액	착공일	물 량	시 공 사
목포	수품 2,342,000	5.8	동방파제상부1식, 물양장상치110m, 상부70m, 축조120m, 선양장하부40m, 호안도로정비1식 준설토투기장1식, 준설13,533㎡	대지종합건설(주)
	서망 187,000	준공	호안배후도로300m	광남개발(주)
	어린진 508,669	5.22	준설 130,000㎡	용호산업개발(주)
	마량 114,000	준공	물양장보강1식, 배수로설치1식	금광기업(주)
	득암 3,671,000	3.14	동방파제축조30m, 하부25m,	금광기업(주)
	사동(전) 670,500	6.22	여객부두축조20m, 선착장보강1식, 배후부지복토1식	금광기업(주)
	청산도 1,096,000	5.26	물양장상부30m, 축조35m, 선양장축조30m, 투기장호안140m, 준설1,700㎡	가산토건(주)
	보옥 3,116,960	2.18	남방파제상부49m, 상치1식	남광건설(주)
	여서 4,863,781	4.18	서방파제축조43m, 두부1식, 도제하부14m, 하두부1식	금광기업(주)
	죽변 1,194,000	4.1	익제축조34m	서안건설(주)
포항	오산 3,022,580	3.6	북방파제축조63m, 방사제축조175m	태림종합건설(주)
	사동(경)			
	구산(1차) 2,070,000	3.4	북방파제축조74m, 물양장하부50m	화산건설(주)
	구산(2차) 1,057,536	7.6	방사제축조160m	대흥종합건설(주)
	대진(경) 1,743,500	5.18	방파제축조12m, 선양장축조30m, 안파쇄15,898㎡,	(주)삼건사
	축산 3,118,060	6.7	북방파제 상부49m, 동방파제 축조42m, 제작장1식	(주)삼건사
	구계 359,702	8.4	물양장축조90m	장원건설산업(주)
	대보 631,000	5.24	북방파제보강1식, 상치보강두부14m, 제간부56m, TTP보강81m	동영토건(주)
	양포 828,000	준공	방파제보강1식	갑을건설(주)
	감포 3,130,000	준공	도제상부52m, 하부36m, 하두부1식, 등대1식	갑을건설(주)
제주	현포 4,525,000	3.15	동방파제축조32m, 하부16m	동화건설(주)
	저동 2,510,000	5.18	남방파제보강1식, 물양장개축40m, 상부75m	화산건설(주)
	도두 300,000	준공	항내준설1식, 물양장배후지포장24.69	신진종합토건(주)
	신양 2,289,540	6.20	안벽축조100m, 방파제보강1식	신진종합토건(주)
	모슬포 1,518,555	6.30	물양장하부92m, 박지준설17,800㎡, 서방파제상치보강144m, 호안정비157m	신진종합토건(주)
대산	위미 105,000	준공	차막이 431개소, 계단보강1식	(주)신유안전기술
	모항 3,729,000	3.14	방파제축조60.5m, 물양장하부87m 호안상부335m, 선양장축조30m	성우건설(주)
	오천 983,500	8.2	물양장상부41m, 하부42m	활림건설(주)
홍원 2,429,000	6.5	물양장상부190m, 선양장30m, 도로포장1식 가호안436m, 상부144m, 준설23,294㎡	동방건설(주)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철 지난 생야채보다 깡통 야채가 비타민이 많다.

요즘에는 토마토나 오이가 여름 야채라는 말에 놀라는 아이들이 많다. 그들은 태어나서 부터 일 년 내내 이런 야채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품종 개량이나 하우스 재배에 의해 언 제라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지만 제철에 비하면 비타민 함유량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 제철 야채가 한창일 때라도 슈퍼같은데 진열되기 위해선 아무래도 익기 전에 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비타민 A, B₁, C같은 것은 완전히 익지 않으면 충분한 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야채라 해서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만 할 수 없다.

그것에 비해 깡통에 든 야채는 완숙한 야채로 만들기 때문에 비타민이 생야채보다도 많이 들어있다. 즉, 깡통 토마토 주스 쪽이 익지 않은 상태로 딴 싱싱한 토마토보다 훨씬 비타민이 많은 것이다.

신선한 생선이 맛도 영양도 훨씬 좋듯이, 야채도 사계절 내내 제철의 것을 밭에서 금방 딴 싱싱한 채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

과일을 '신앙시' 하는 것은 오히려 비만을 촉진하는 것 확실하 과일에는 비타민C나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식물이다.

특히 숙취를 한 이튿날 아침 같은 때는 비타민이 간장의 움직임을 돕기 때문에 음주에게 주는 '아침 과일'은 금'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과일에는 설탕 이상으로 중성지방을 만들어내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비타민 A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체내로 들어간 과당은 비타민 B₁의 역할로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데, 일부는 포도당으로써 혈액 속으로 흘러가게 된다. 설탕을 섭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있다.

포도당은 어느 땐가는 중성지방이 되어 콜레스테롤로써 체내에 축적된다. 비타민A에는 그 콜레스테롤을 연소시켜 에너지로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따라서 비타민A가 부족하면 콜레스테롤이 모두 피하 지방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필요이상으로 과당을 섭취하게 된다.

그런데 그 과당이 피하 지방으로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A가 전혀 없으므로 비만 방지책은 오히려 비만을 조장하게 된다. 과일은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어·항·교·실

(47)

第4章 地盤改良工

4.2.2 표준적인 시공순서

그림 4.2.3에 도시한 바와 같다.

부설사공의 표준적인 시공순서는 4.2.3 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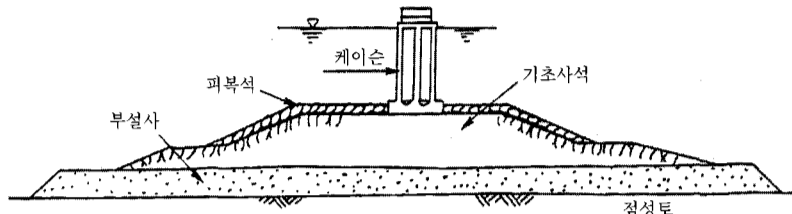


그림 4.2.1 방파제 부설사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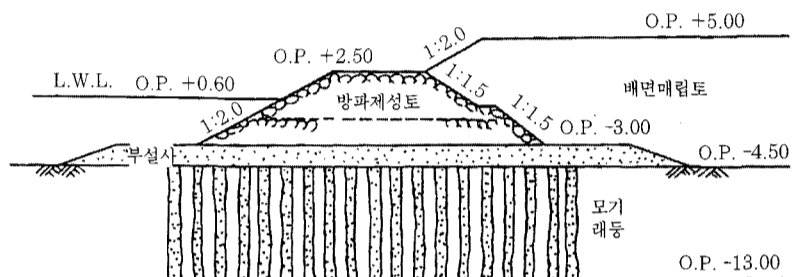


그림 4.2.2 샌드드레인의 부설사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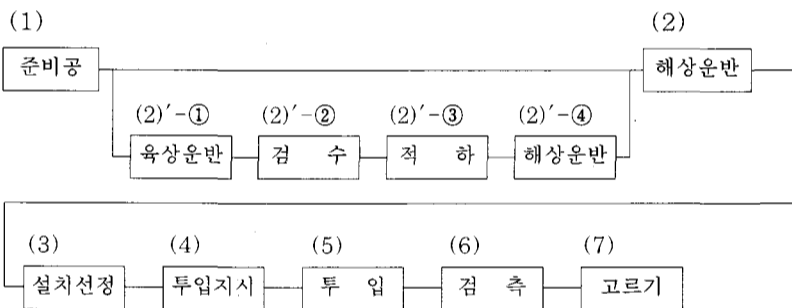


그림 4.2.3 부설사공의 표준적인 시공순서

(1) 준비공, (2) 해상운반, (3) 위치선정, (4)투입 지시는 3.4 사석공과 같다.

(5) 투입

1개소에 집중하여 투입하였을 경우, 연약층을 밀려들게 하거나, 박히거나, 함몰이 생기는 일이 있으므로 몇층으로 나눠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다만, 부설사층이 도중에서 절단되면 배수효과를 잃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 검 측

검측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주위의 상황에 따라 레벨이나 레드(lead)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7) 고르기

부설사 표면의 요철이 클 경우의 고르기는 그레브선이나 거트선에 의한 모래의 보충이나 굴착을 한 후, 강제 고르기 판을 예인선이나 거트선으로 끌고다니는 방법을 취한다.

4.2.4 시공관리

부설사공사의 시공관리는 재료관리, 규격관리 및 오락관리이다.

재료관리 시 공개시전에 부설사 재료의 선정과 시공중에 실패분 함유량을 관리한다.

내년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연금소득에도 단계적으로 세금부과

재경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2003년 균형재정달성을 목표로 세수기반확대와 중산·서민층 세금경감,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등 세가지이다.

재경부는 내년 중 에너지세 개편과 세금감면제도 조정을 통해 7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중산층 세금부담 감소와 기업 경쟁력 지원 용도 등에 쓸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도 세금 부담액은 에너지세 대폭 인상과 교육세 부담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주요 세제개편 내용이다.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같은 각종 연금의 불입액에 대해 내년에는 불입액의 절반을, 2002년부터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세 계산시 공제받게 된다. 그 대신 연금소득 수입에 대해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내년 부터는 단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 의료비 공제확대, 장애인 보험료 공제 = 의료비는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에 대해 소득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도 허용된다. 또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

는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이 올해 말에서 2002년말까지 2년간 추가 연장된다.

◆ 연금여 4500만원 초과시 소득 공제 = 연간소득이 45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초과 금액의 5%범위에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한다. 예컨대 연

봉이 1억원일 경우, 추가로 275만원(5500만원의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명예퇴직금과 정리해고 수당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특별공제(75%)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며,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범위가 퇴직금의 50%로 단일화된

◆ 에너지 세제개편, 교육재정 확충 = 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와 경유가격 등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재경부는 "2002년 말까지 발생하는 4조~5조원의 추가 세수를 운수업계와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쓰고, 교육세의 시한 연장(5년)

과 지방교육세 신설 등을 통해 내년 중 1조 6000억원 정도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세제 감면제도 축소 =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55개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해 3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기부금 출연은 지금까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금액의 50%까지로 축소된다.

◇ 주요 세제개편 내용 <자료 : 재정경제부>

구분	개정안	현행
근로소득 공제	연소득 1500~4500만원 : 10% 4500초과 : 5% * 1500만원 미만은 동일	연소득 500만~1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10%
의료비 공제	연간 300만원	연간 200만원
장애인 보험료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제도 신설 : 연간 100만원까지	-
주택 양도세	양도차액의 10% (9월1일부터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신축분양 주택을 살 경우에 한함)	양도차액의 20~40%
우리사주 배당금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시 10%과세
스톡옵션 비과세기준	행사이익 기준으로 3000만원	행사가액 기준으로 3000만원
신종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이익 과세 기준	주식으로 전환한 시점의 차액에 과세	주식 취득시점의 차액에 과세
근로자우대저축·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시점	2002년 12월31일까지 가입자로 연장	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자
카지노(솔롯머신) 이익금	한건당 당첨금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0%과세	내국인 출입불가
연구개발(R&D) 지원금	의료·도소매·축산·산림·어업 등 추가	제조업·엔지니어링·컴퓨터업 등

◇ 국민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효과

(봉급생활자/4인가족기준/단위 : 만원)

연간급여	▷2001년			▷2002년 이후			
	현행 결정세액	개정안 결정세액 증감액		현행 결정세액	개정안 결정세액 증감액		
1,000	0.0	0.0	0.0	1,000	0.0	0.0	0.0
1,200	0.0	0.0	0.0	1,200	0.0	0.0	0.0
1,500	7.7	5.8	-1.9	1,500	7.7	4.0	-3.7
1,800	22.6	20.3	-2.3	1,800	22.6	18.1	-4.5
2,000	33.8	30.7	-3.1	2,000	33.8	27.5	-6.3
2,500	68.1	61.4	-6.7	2,500	68.1	57.4	-10.7
3,000	138.0	124.5	-13.5	3,000	138.0	112.2	-25.8
4,000	318.0	300.0	-18.0	4,000	318.0	282.0	-36.0
5,000	508.0	483.6	-24.4	5,000	508.0	464.1	-43.9
6,000	742.0	690.3	-51.7	6,000	742.0	661.2	-80.8
7,000	1,042.0	975.3	-66.7	7,000	1,042.0	946.2	-95.8
8,000	1,342.0	1,260.3	-81.7	8,000	1,342.0	1,231.2	-110.8
9,000	1,642.0	1,545.3	-96.7	9,000	1,642.0	1,516.2	-125.8
10,000	1,976.0	1,830.3	-145.7	10,000	1,976.0	1,801.2	-174.8

생활정보

생활정보